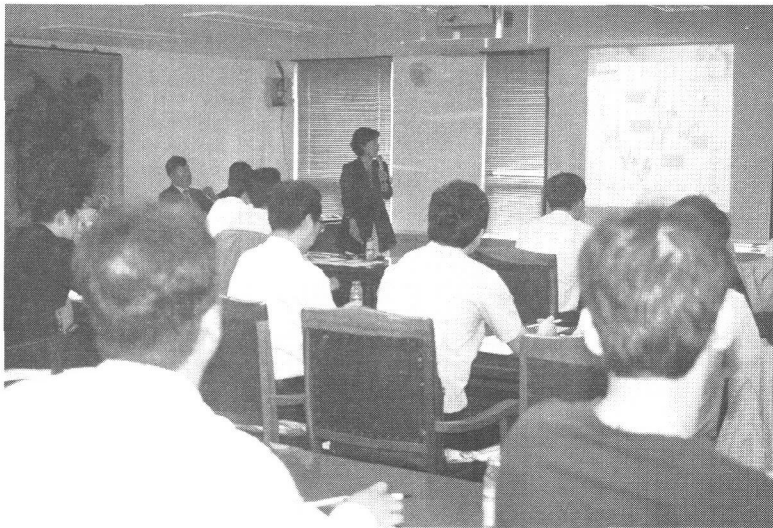


# 『2012 하반기 환율 및 외환시장의 비밀』 세미나 실시



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으로 인해 원/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향후 국제 경제 및 환율 변동에 대하여 전망해 보고 외환거래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, (주)삼성선물과 공동으로 실무자 중심의 “환율 및 외환시장의 비밀” 세미나를 실시하였다.

## □ 세미나 개요

- 일 시 : 2012. 6. 19(화) 16:00~18:10

- 장 소 : 협회 회의실
- 대 상 : 전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
- 참석인원 : 31명

## □ 주제 및 발표자

- 2012년 하반기 환율 및 경제전망(삼성선물 리서치센터, 정미영 센터장)
- 외환시장의 10가지 비밀(삼성선물 외환전략팀, 윤찬호 과장)
- 달러선물을 이용한 스마트 환전(삼성선물 외환전략팀, 노재준 부장)

## □ 환율전망 요약

- 2008년 이후 환율 변동의 키(Key)는 정부가 쥐고 있음.
  - 2008년 리먼사태 이후 정부의 고환율(원화 가치 저평가) 정책 유지 (수출 확대 및 수입 억제 - 원료를 수입·가공하는 식품물가 상승 요인)
- 최근 환율동향
  - 5월 그리스 유로존 이탈(Grexit) 가능성 부각으로 유로화 급락, 달러화 급등
  - 6.17일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을 받아들이는 신민당 승리, 세계 금융 안정
  - Grexit 이후 중국 경기둔화, 스페인발 유로존 위기 재연 우려 부각
- 향후 전망
  - 유로존 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

대적 미국 경제의 호조(실업률 감소, 소비증가, 완만한 주택시장 회복)로 세계 경제의 급격한 디플트 가능성 희박

- 중국 경제성장률이 '11년 4분기 8.9%, '12년 1분기 8.1%, 2분기 7% 예상되면서 부동산 경기 냉각으로 세계 경제의 암운 제공  
→ 향후 경기부양책 발표 기대
- 그동안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버텨오던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의 대폭 감소 전망
- 결론 :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 (1,100원에서 1,200원 사이)

단, 원화가치에 대한 저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안정화될 전망 ☞